



키움증권
해외주식 수수료 이벤트

키움증권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해외주식 수수료 부과율 할인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벤트 신청 시 3개월 간 해외주식 온라인 매매수수료가 0.1%로 할인되며 미국주식의 경우 최저수수료(7달러)도 면제된다. 또 환전 시 80% 우대환율의 혜택이 적용된다. 이벤트 기간 내 해외주식 1000만원 이상 타사대체 입고 고객에게는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3만원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이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하이투자증권
30억 규모 ELS 모집

하이투자증권은 오는 15일부터 19일 오후 1시까지 주가연계증권(ELS) 1종을 총 3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

'HI ELS 1600호'는 코스피200(KOSPI200) 지수, 홍콩항셍중국기업(HSCEI) 지수, 유로스톡스50(EUROSTOXX 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로,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 85%(12개월), 80%(18개월), 75%(24개월), 70%(30개월), 65%(36개월) 이상이면 최대 18.6%(연 6.2%)의 수익을 지급한다. 또 만기 시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이면 최초제시수익률을 지급한다.

/손엄지 기자



유안타증권
AI투자분석 '티레이더 3.0'

유안타증권은 15일 기준 '티레이더' 인공지능(AI)을 고도화된 종목분석 기능으로 확대하고, 시장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제공하는 등 서비스와 기능을 대폭 업그레이드한 인공지능 투자분석 시스템 '티레이더3.0'을 선보였다.

투자알고리즘을 통해 상승·하락 유망 종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직관적인 매매신호로 상승·하락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등 개인 주식투자자들을 위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새로 선보이는 '티레이더3.0'은 유안타증권이 축적한 인공지능 투자분석 서비스 노하우로 맞춤형 서비스와 빅데이터 기반 분석 방식을 제시한다.

/손엄지 기자



**1100억 증자로
신용회복 순항**

새주인 맞은
두 증권사
새 도약 준비

자기자본 5500억 '증권사' 재무건전성·주주가치 제고

최근 새 주인을 맞이한 SK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에 분주하다.

SK증권은 자본확충을 통해 재무건정성 강화에 나섰다. 지주사에 편입된 하이투자증권은 계열사 간 시너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1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SK증권은 총 1100억원대 유상증자를 통해 신용등급 회복에 나선다.

앞서 신용평가사들은 SK증권의 대주주가 SK에서 J&W파트너스로 변경되면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바 있다. SK그룹 계열 지원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게 근거였다. 지난 7월 말 한국신용평가는 SK증권의 장기신용등급을 A에서 A-(안정적)로 하향 조정했고, 한국기업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도 한 단계씩 등급

을 내렸다. 더욱이 당시 신청자들은 "SK증권이 연내에 충분한 자기자본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자체 신용도에도 문제가 생겨 신용도를 추가로 하향 조정할 수도 있다"고 코멘트 했다.

SK증권 역시 이번 증자에 대해 "자본확충을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 및 영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공시했다. SK증권의 순자본비율(NCR)은 지난 6월 말 기준 225.7%다.

또 자기자본이 필수적인 IB영업에서 경쟁력 강화도 기대된다. 증자가 마무리되면 SK증권의 자기자본은 5500억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KTB투자증권(4700억원)을 추월하고 증권 증권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를 통해 SK증권이 강화하고 있는 기후금융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금융은 기후변화 대응 활동과 금융상품을 연결해 친환경 사업에 투자하는 금융 분야다. 지난 9월에는 비금융업권 최초로 녹색채권 발행을 대표 주관

하며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SK증권은 이번 증자를 통해 기존 채권자본시장(DCM) 부문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신성장 사업군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올해 중기특화 증권사에 합류한 만큼 관련 전담 팀(부)도 신설할 계획이다

한편 DGB금융지주를 새로운 주인으로 맞은 하이투자증권은 영업의 보폭을 넓히게 됐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기반으로 하는 하이투자증권(옛 CJ투자증권)은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단단한 기반을 갖춘 DGB금융을 새 주인으로 맞이하면서 네트워크를 넓힐 수 있게 됐다.

상반기 기준 대구은행은 국내지점 249개 중 232개가 대구·경북지역에 집중돼 있고 하이투자증권 지점은 서울·경기 10개, 부산·울산·경남 16개, 대구 1개로 수도권·경남지역에 집중돼 있다.



**복합점포 추진
IB부문 강화도**

장기신용등급 'A+'로 상향조정
단기등급 'A2+'서 'A1'로 올려

이에 따라 DGB금융은 금융 복합점포(CIB) 개선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증권사, 보험, 은행을 계열사로 갖춘 BNK금융지주는 올해 CIB에 진출을 통해 팔복합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아울러 하이투자증권은 IB부문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금융과 채권금융 부문에서 강점을 가졌다. 지난해 연결기준 전체 순이익(1886억원)에서 절반에 가까운 금액(894억원)이 IB부문에서 나왔다.

하이투자증권이 지주사에 편입됨에 따라 나이스신용평가는 하이투자증권의 장기신용등급을 'A'에서 'A+'로 상향조정했다. 단기신용등급도 기존 'A2+'에서 'A1'로 올랐다. 이는 IB 사업부문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부동산 과세역량 강화' 글로벌 연수

한국감정원이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KOICA(한국 국제협력단·코이카)와 '부동산 과세 기준 가격조사 역량강화 글로벌 연수'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4일 KOICA·한국감정원 부동산 과세기준 가격조사 역량강화 글로벌연수의 첫째날 개회식 및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연수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한국감정원이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KOICA(한국 국제협력단·코이카)와 '부동산 과세 기준 가격조사 역량강화 글로벌 연수'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4일 KOICA·한국감정원 부동산 과세기준 가격조사 역량강화 글로벌연수의 첫째날 개회식 및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연수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한국감정원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제정

한국공인회계사회, 내년 4월 시행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5일 외부감사업무 수행 시 지켜야 할 종합적 행동기준인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을 전문가업계 최초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행동강령은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될 외부감사업의 회계개혁 취지에 공인회계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제정됐다.

행동강령에는 회계업계 스스로 하는 자정노력과 대외 신뢰확보를 위해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외부감사의 공정성과 감사인 독립성 확보를 위한 청탁·접대행

위 금지 ▲공정한 감사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거부 의무 ▲감사인인 감질 행위 금지 등 지정감사제 도입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표준감사시간 준수 등 높은 수준의 감사품질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이다.

회계사회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제보를 접수할 신고센터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위반 시 독립된 윤리위원회에서 심의·조치하는 등 자율규제 활동을 병행한다.

해당 행동강령은 공인회계사와 유관단체 대표 15인으로 구성된 '행동강령 제정 특별팀(TF)'에서 지난 1년 동안 10여 차례의 논의를 거쳐 지난 12일 평의원회에서 최종 의결했다. 시행은 내년 4월부터다.

/손엄지 기자

아름다운 우리강 탐방로 100곳 선정

국토부, 화보집 제작·공개

북한산 파로산소길 등 아름다운 우리강 탐방로 100곳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경치 좋은 하천을 조망하며 거닐 수 있는 탐방로를 엄선해 '아름다운 우리강 탐방로 100선' 화보집을 제작해 공개했다.

국토부 자체 발굴과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통해 후보지 263곳을 추리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변경관(50곳), 생태환경(16곳), 역사·문화(34곳) 등 3개의 테마로 선정됐다.

화보집에는 탐방로의 위치와 노선도 및 연장, 소요시간 등의 정보가 수록돼 있고 주변 관광 명소, 지역축제에 대한 정보도 함께 실었다.

아름다운 우리강 탐방로 중 서울에는 한강 둘레길 6코스 등이 포함돼 있다.

9호선 신북동역에서 한강 둘레길을 따라 금천교까지 가는 11km에 달하는 코스로 2시간 20분가량 소요된다. 코스가 길지만 지하철역이 곳곳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편리하고 전 구간이 평탄한 지형으로 도보여행이 수월하다.

수도권에는 북한산 파로호산소길 등이 선정됐다. 판산유원지에서 남천산림욕장, 봉어섬, 원천인조축구장 등지로 이어지는 코스(17km)다. 판산유원지의 인공폭포부터 숲으로 다리, 폰툰다리 등 경관을 감상하기 좋고 화천군에 자전거 대여소가 있어 라이딩 코스로도 주목받는 곳이다.

남한강 여강길은 세종대왕릉~영월루~신록사~목야박물관~강천섬유원지로 이어지는 코스(26km)다. 아름다리나무와 예쁘게 꾸민 산책로를 즐길 수 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2018 전주 자전거 한마당' 20일 개최

LX-전주시, 한국전통문화전당서
자전거 대행진·축하공연 등 마련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전주시와 함께 문화의 날인 오는 20일 한국전통문화전당 야외마당과 인근 도로에서 '2018 전주 자전거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2018아시아게임과 현재 진행 중인 전국체전 금메달리스트인 박상훈 선수가 속해있는 LX사이클 팀이 참여한다. 유법진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가 속해있는 전주시청 사이클 팀도 함께 한다.

행사는 한국전통문화전당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국가대표 사이클 토크콘서트와 팬 사인회, 자전거 대행진, 축하공연, 경품추첨 등으로 진행된다.

메인행사인 자전거 대행진에서는 사이클 국가대표, 자전거동호인, 전주시민 등 약 1500명이 참가해 행사장부터 기린대로를 거쳐 추천대교까지 왕복 10.5km의 도심 도로를 70분간 달리게 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자전거 이용 시 안전도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행진 참가자들은 안전도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 아크로바틱 자전거쇼와 마술쇼 등 축하공연과 플라멩코, 페이스페인팅, 자전거로 솜사탕 만들기, 자전거 꾸미기 등 다양한 체험부와 함께 이색 자전거 타기 등도 마련돼 있다.

최창학 시장은 "사이클은 모든 국민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건강스포츠"라며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한자리에 마련했으니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